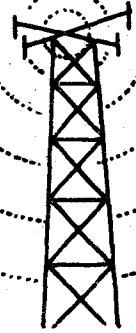


# 8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 양계산업의

## 앞날은 밝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양계업계의 불황은 59%의 석유값 인상과 이에따른 각종 물가의 인상으로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황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즘 업계에서 흔히들 이제 양계업은 끝났다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무엇이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양계산업은 요즘 불경기를 보고 사양산업이 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FAO(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장기전망을 소개하여 불경기에 시달리는 양계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인류의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으로 부

로일러와 칠면조가 주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식육전문가는 관측하고 있다. 과거 30년간 가금육의 수요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1977년 세계가금육 총생산량은 1,660만톤에 까지 이르러 76년보다 5%나 증가 하였다.

특히 최근에 중동 산유국의 소비증가는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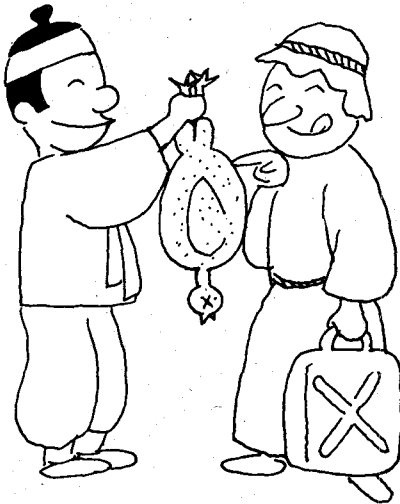
1977년의 1인당 가금육 소비량을 보면(FAO 자료)

미국이 25kg 이태리 16.9kg 이스라엘 49.2kg(닭고기 36kg 칠면조 13.2kg)으로 우리나라의 2.0kg과는 비교도 할수 없으며 우리는 91년에 가도 겨우 6.9kg밖에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 양계인을 슬프게 하고있다.

우리도 우리나라민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가공식품의 개발에 따라 양계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닭고기의 소비 증가는 간단히 현재의 3~4배로 증가 시킬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부로일러는 다른 어느 육류보다도 생산비가 적게들고 생산기간이 짧으며 경제 적이므로 이스라엘에서는 가금육 생산과 소비를 정부가 적극 권장하여 가금육과 계란의 생산액이 농업생산의 20%를 점유하고, 가금육이 동

바자자 !!



물성단백질 급원의 40% 계란이 14%를 점유하며 식육의 60% 이상을 닭고기와 칠면조고기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최근 육류 수요가 쇠고기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FAO는 가금육의 1985년 수급예측을 발표하였는데

생산은 수요에 적응하여 증대하며 각국의 자급율은 1972-74년과 비교하여 별로 변하지 않고 연간 3.2%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 10년간에 비하면 지극히 성장율이 둔화된 것인데 FAO는 동구와 소련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부로일러가 크게 신장율이 둔화되고 반대로 칠면조 오리 및 기타 鳥肉생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급속한 증산이 예상되는 곳은 동구 소련 개발도상국으로 이중에서도 특히 中東지역의가

가금육 생산 증가율이 높을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것은 이지역이 가금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려는 계획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구입사료에 의한 공장식 경영으로 발전시키려 하고있다.

가금육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일본 소련 동구 및 개발도상국들이나 특히 석유수출국이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다.

반대로 서구의 수요증가는 소폭일 것이며 북미는 더욱 소폭일 것으로 보고있다. 앞으로 가금육의 수요가 크게 신장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가금육이 쇠고기에 대체되기 때문인데 칠면조 오리 저위등 다른 가금육의 수요도 서구에서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고있다.

가금육의 무역예측은 미국 네델란드 덴마크 중공 동구 및 브라질등이 상위 수출국이 될 것이며 中東여러나라와 홍콩 서독등이 주요

가금육 : 국제무역, 수출가능량(調整濟)과 수입필요량

	純輸出 實績 1972-74 年平均	輸出可能量 (調整濟) 1985年		純輸入 實績 1972-74 年平均	輸入必要量 (調整濟) 1985年	
		基本	補正		基本	補正
		1,000 <sup>3</sup> 타·ton				
세	계 823	1,160	1,230	662	970	1,060
개발도상국	139	270	310	208	390	450
라틴아메리카	14	70	80	95	140	160
라질	0	50	60	0	0	0
아프리카	6	10	10	17	30	40
중동	6	10	10	40	140	170
극동	13	30	30	46	60	70
아시아경제계획국	100	160	180	0	0	0
중공	100	160	180	0	0	0
기타개발도상국	0	0	0	10	20	20
선진국	684	890	920	455	580	610
북미	96	110	110	0	0	0
미국	595	110	110	0	0	0
서구	395	490	510	360	420	450
EEC	378	470	490	313	370	390
덴마크	58	70	70	0	0	0
프랑스	56	70	70	0	0	0
서독	0	0	0	287	340	350
네델란드	247	310	320	0	0	0
기타서구	17	20	20	47	50	60
동구	179	210	270	15	20	20
기타선진국	10	20	20	25	50	50
일본	0	0	0	25	50	50

1) 國段階로본 個個의 肉의 純貿易 2) EEC 역내부역을 포함

家禽肉의 生産実績과 豫測(左)과 消費및 需要豫測(右)

	가 금 육						가 금 육					
	실 적			1985년예측			계			1인당		
	1962~54	1972~74	1975~77	기 본 보 정			1972~74	1985년	1972~74	1985년		
	년 평균	년 평균	년 평균	년			년	기 본 보 정	년	기 본 보 정		
	.....1,000미터·ton.....						.....1,000미터·ton.....					
	.....년평균키로.....						.....년평균키로.....					
세계합계	11,059	20,591	23,132	30,170	32,450	20,431	29,980	32,270	5.4	6.3	6.8	
개발도상국	3,115	5,997	6,938	10,900	12,530	6,066	11,020	12,670	2.2	3.1	3.6	
라틴아메리카	461	1,549	1,816	2,940	3,340	1,630	3,020	3,420	5.3	7.1	8.1	
알젠틴	50	228	237	320	320	217	300	310	8.8	10.6	10.7	
부라질	150	550	690	1,070	1,250	550	1,030	1,190	5.3	7.1	8.2	
콜롬비아	31	53	61	120	140	54	120	140	2.2	3.5	3.9	
멕시코	47	252	300	530	620	257	550	630	4.6	6.7	7.8	
베네주엘라	43	115	155	240	270	116	250	280	10.1	15.3	17.1	
아프리카	253	416	462	870	1,040	427	890	1,070	1.4	2.0	2.4	
나이지리아	40	53	58	160	200	54	170	200	0.8	1.7	2.0	
근동	163	414	539	1,040	1,280	448	1,170	1,440	2.5	4.6	5.7	
구동	375	647	718	1,310	1,570	681	1,350	1,610	0.7	1.0	1.2	
인도네시아	69	95	104	160	200	95	160	200	0.2	0.2	0.3	
한도네스	46	76	82	170	210	73	170	200	0.6	0.9	1.1	
한국	21	57	60	130	160	57	130	160	1.7	3.1	3.7	
필리핀	62	118	135	250	280	118	250	280	2.9	4.3	5.0	
태국	36	74	82	150	160	72	140	150	1.8	2.7	2.9	
아세아계획경제국	1,863	2,968	3,398	4,730	5,290	2,868	4,570	5,110	3.3	4.3	4.8	
중국	1,792	2,850	3,272	4,540	5,040	2,750	4,380	4,860	3.4	4.5	5.0	
베트남	51	78	83	110	150	78	110	150	1.9	2.1	2.7	
기타개발도상국	1	2	3	0	0	12	20	20	2.8	3.2	3.6	
선진국	7,944	14,594	16,194	19,270	19,920	14,365	18,960	19,600	13.0	15.6	16.1	
북미	4,712	6,903	7,356	8,020	8,110	6,807	7,910	8,000	29.3	30.2	30.5	
캐나다	324	463	445	600	610	462	600	610	20.9	22.7	23.0	
미국	4,388	6,440	6,910	7,420	7,500	6,345	7,310	7,390	30.2	31.0	31.3	
서구	1,760	4,162	4,557	5,390	5,660	4,127	5,320	5,600	11.4	14.2	14.9	
E E C	1,484	3,095	3,312	3,910	4,080	3,030	3,810	3,990	9.8	14.5	15.2	
벨기에	87	109	100	140	95	120	140	120	6.4	11.5	11.9	
룩셈부르크	80	90	92	130	32	60	130	60	9.4	11.5	11.5	
덴마크	468	810	892	960	980	754	890	910	14.5	11.6	11.6	
프랑스	115	259	297	300	320	546	640	670	8.5	16.2	16.5	
서독	17	40	34	50	50	765	1,160	1,260	14.9	11.0	11.6	
아일랜드	249	781	901	1,140	-1,240	93	140	140	6.5	20.0	21.7	
이탈리아	116	340	334	440	460	676	760	770	12.9	9.0	11.5	
네덜란드	352	665	664	750	1,097	1,510	1,510	1,620	10.0	13.2	9.6	
영국	276	1,067	1,245	1,480	1,580	67	90	100	8.5	13.4	13.6	
영	28	54	66	70	80	584	780	840	16.9	11.4	15.3	
기타서구	105	601	687	800	860	35	50	60	4.9	19.9	12.3	
오스트리아	18	35	40	50	60	45	40	40	7.3	6.9	21.5	
스페인	6	19	19	20	20	165	260	280	7.0	6.2	6.5	
스위스	67	162	202	260	270	2,217	3,490	3,650	6.9	11.6	6.8	
유고슬라비아	1,272	2,326	2,877	3,650	3,810	1,352	2,160	2,270	5.2	8.4	11.9	
동구·소련	812	1,297	1,579	2,070	2,170	865	1,330	1,380	8.4	7.8	9.2	
소련	460	1,029	1,298	1,570	1,640	865	1,380	190	9.1	11.7	8.0	
동구	64	127	154	180	190	125	170	180	7.0	11.5	11.9	
체코슬로바키아	76	114	133	160	160	210	220	220	15.3	9.9	12.3	
동독	76	114	133	160	125	170	170	180	4.3	19.8	10.2	
헝가리	137	275	311	360	370	160	210	220	9.4	8.4	19.9	
폴란드	73	182	267	370	390	146	300	310	12.9	8.1	8.5	
루마니아	71	212	299	340	350	206	330	340	13.9	14.4	15.0	
오세아니아	58	201	227	330	350	197	330	340	7.1	16.7	17.5	
오스트랄리아	50	178	153	290	310	174	290	300	13.0	18.0	18.9	
기타선진국	142	1,002	1,178	1,880	1,990	1,017	1,910	2,020	7.5	11.9	12.6	
일본	60	703	805	1,330	1,440	728	1,380	1,450	6.7	11.2	11.8	

수입국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동제국은 대규모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수입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 일본 홍콩등 가금육 수입국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동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어 가금육 수출국으로 양계인의 노력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불경기로 어려우나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밝은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양계인이여, 실의에 빠지지말고 힘을내어 불황을 단축시키기 위해 온 힘을 모읍시다.

## 일본농림성 財界의 수입개방 요청에 반론제기

얼마전 일본에서 財界와 部勞動界가 현일본 정부의(농수산성) 농민 보호정책을 비판하고 ① 농업 보호 수준의 인하, ②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③ 식료품 가격 이하, ④ 食管제도의 근본적 검토, ⑤ 토지정책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농정비판에 답하기 위하여 일본 농림수산성 및 전국농협중앙회(藤田三郎會長)가 여러가지 반론을 공표 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농림수산성은 「식료품의 안정공급과 농업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화된 식생활"」 「"식료품 가격의 현황"」 「"농업과 농촌의 역할"」 등 5개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하는 것을 보면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1. 식료품중 개별적으로는 높은것이 있지만 일본인의식생활을 전제로 하여 시산(試算)하면 금년 2월에 동경이 100에 대하여 합부르크 91, 파리 75로 유럽제국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다.

2. 1976년이래 식료품 가격의 상승율은 모든 물가의 소비자가격 상승율 보다 낮다.

3. 식료품의 가격은 유통, 가공비가 크며 실제 농가 생산가격은 비싸지 않다는것 등으로 되어있다.

또 전국농협중앙회는 "세계 노동계의 농정비판에의 계통농협(系統農協)의 견해" 라는 제목으로

① 현재 일본의 대외 경제마찰은 공산품 수출지상주의의 결과로 보호무역의 대두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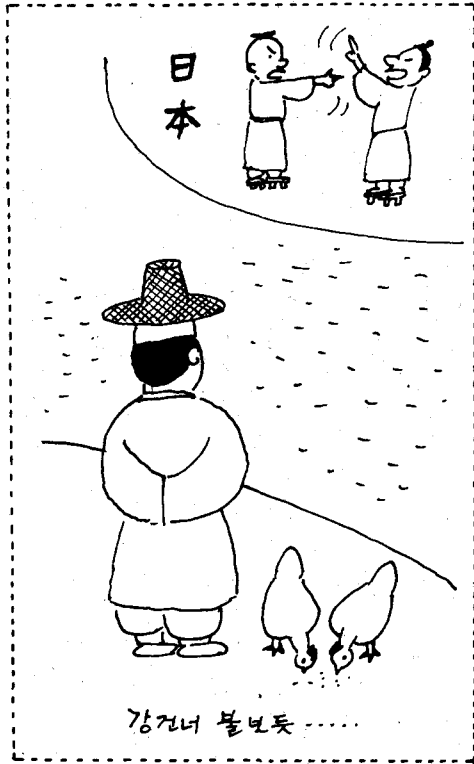
② 농축산물의 자유화와 가격의 인하는 농업을 파괴하고 농업에서 나이가 많은(中年)취업자를 배제하여 중대한 고용불안과 사회불안을 초래 하였다.

③ 식량의 안정된 공급은 국민적 과제로 더욱더 농업정책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④ 농업과 농촌은 환경을 유지보전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 등으로 되어있다.

우리도 지난 4월 4일자 조선일보에 IMF(국제통화기금)주한(駐韓)대표 말로박사가 우리나라는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쇠고기등 생산원가가 비싼 농축산물은 과감하게 수입 개방하고 생산원가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만을 정책적으로 보호하여 생산을 계속하는 장기농정을 수립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이 없는 품목의 생산을 단념케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기사에 대하여 많은 농민이 폐농정책으로 받아들여 크게 반대하였으며 동지 4월 12



일자에 동국대학교 농대학장인 朱宗桓 박사가 농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주는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첫째, 식량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식량안보가 흔들리며 이런 이유로 농촌보호정책을 쓰며 EEC도 농축산물의 수입 자유화에는 20년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둘째, 쇠고기의 국제시세가 과거 3년간 3배나 올라 공산품과 달라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원상복귀 하는데 장기간이 소요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세째,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생산비를 낮출수 있으며

네째, 생산비가 국제가격보다 비싼것은 공산품도 많은데 농축산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섯째, 이종곡가제로 쌀의 자급이 달성되

었으며 고미가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후 신문보도에 국제가격보다 1.5배이상 비싼 농축산물은 수입한다는 경제기획원의 발표도 있었고 이에 대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반론도 크게 보도 되었으나 그후 마늘, 옥파, 감자등의 풍작과 국내 한우 돼지가격의 하락으로 수입논쟁은 잠적 하였고 수입 쇠고기 방출물량 조정으로 한우가격도 상당히 회복되어 양축 농가에 새로운 희망을 주어왔다.

양축가들은 축산물 수입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의 축산물 가격과 우리를 비교하였고 일본이나 구주공동체의 농가 보호정책을 예로 수입정책이 부당함을 주장 하였다.

지난 7월18일자 D일보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를 게재되었는데 여기에 그전문을 소개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등 식생활변화를 주도해온 주요식품 가격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이웃 日本,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작년말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15만9천원, 日本은 51만2천원 臺灣은 17만9천원인데 쇠고기 1근(6백g기준)의 경우 한달 소득에서 차지하는 指數는 한국이 1.0, 日本과 臺灣은 0.7이고 돼지고기는 한국 0.7, 日本 0.3, 臺灣 0.4, 우유는 한국 0.03, 日本 0.01, 臺灣 0.03으로 밝혀졌다.

또 쇠고기의 年間1인당 소비량은 한국이 2.7kg인데 비해 日本은 3.4kg이다.

이와같이 주요식품과 기초生活必需品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비싼것은 농수산물의 수입및 국내판매정책이 농가의 걱정이윤보장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앞으로 축산인이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느끼게 하여주며 앞으로 국민 보건을 위하여 축산물소

비 확대 홍보를 좀더 다양하게 하여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필자만의 생각 일는지?

## 석유값과 사료곡물 가격

일전에 본회理事 한분과 업계에 대한 담소 중 최근 신문보도를 종합해 보고 현 경제자료의 개성으로 보아 석유값을 40%정도로 대폭 인상할 것 같다는 필자의 의견에 그 분은 그런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20%정도 선에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다음날 동력자원부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59%라는 대폭적인 유가 인상을 발표하여 양계인은 물론 온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양계경영비중 광열비의 비중은산란계의 경우 경영비중 5% 육용계의 경우 1.8%정도 되는것으로 되어 양계업은 직접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가 쉬우나, 경영비중 산란계는 77.3% 부로일러 64.8%를 차지하는 사료비와 기타 계 재료비의 폭등과 소비위축은 우리가 73년 제 1차 유류파동때 경험한 바와같이 모든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다음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73년 제 1차 석유파동이 72년말에 비하여 22.1%의 닭사육수수를 감소시켰음을 보여주며 석유파동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표 1. 년도별 닭사육수수

년 도	수 수	지 수
1971	25,903,054	100
72	24,537,353	94.7
73	23,070,981	89.1
74	18,814,204	72.6
75	20,938,732	80.8
76	26,283,083	101.5
77	30,224,309	116.7
78	40,753,249	157.3

석유수출국기구의 유가 인상이 발표되자 옥수수뿐만 아니라 사료곡물 가격이 2달사이 톤당 10\$이나 상승하고 있어 우리를 다시 긴장 시키고 있다.

현재 축산진흥회는 금년 10월 말까지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간 적립한 사



표 2. 황색옥수수No. 2, 시카고시장 가격 (\$/ton)

월별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73	62	63	63	65	79	95	99	115	97	93	99	106
1974	114	123	118	106	106	115	132	143	140	147	137	137
1975	126	117	114	117	111	114	116	123	118	108	102	102
1976	103	106	106	106	112	117	117	113	109	98	92	96
1977	100	100	99	99	95	89	81	70	71	72	84	86
1978	86	87	93	99	101	99	90	85	84	87	90	89
1979	91	93	95	100	105	111	(123)					

자료. USFGC 한국지부

미국의 연도별 옥수수 수급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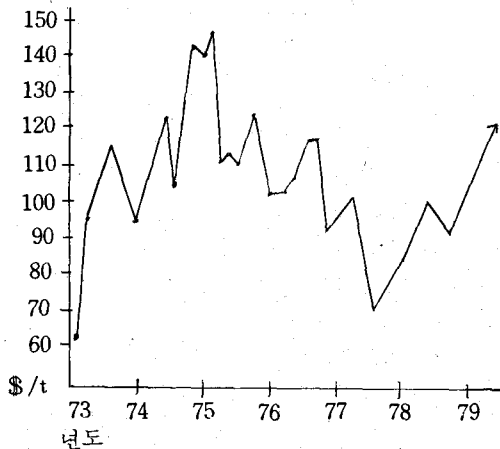
(단위: 백만톤)

	71/72	72/73	73/74	74/75	75/76	76/77	77/78	78/79	79/80(I)	79/80(II)
총 공급량	160.1	170.1	161.3	130.7	157.2	169.2	185.6	207.9	217.4	187.0
(생 산)	(143.2)	(141.4)	(143.3)	(118.4)	(147.9)	(159.0)	(163.1)	(179.7)	(180.3)	(149.9)
(기 타)	(16.9)	(28.7)	(18.0)	(12.3)	(9.3)	(10.2)	(22.5)	(28.1)	(37.1)	(37.1)
총 수요량	131.5	152.1	149.1	121.6	147.0	146.8	157.6	170.7	188.6	172.2
(국내소비)	(111.3)	(120.1)	(117.5)	(92.4)	(103.6)	(104.0)	(108.1)	(118.7)	(134.0)	(110.0)
(수 출)	(20.2)	(32.0)	(31.6)	(29.2)	(43.4)	(42.8)	(49.5)	(52.0)	(54.6)	(62.2)
기말 재고	28.6	18.0	12.2	9.1	10.2	22.4	28.0	37.1	34.6	13.5
(개 인)	(10.4)	(13.6)	(12.1)	(9.1)	(10.1)	(22.4)	(27.7)			
(정 부)	(18.2)	(4.4)	(0.1)	(0.0)	(0.1)	(0.0)	(0.3)			

주: I 세계적 작황 호조 II. 세계적 작황 부조

(자료: 미국 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미국 시카고 월별 옥수수 시세



로안정기금에서 보충하여 사료공장에는 옥수수 구입가격에 관계없이 톤당 70,5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일반전문가들이 도착기준으로 옥수수 톤당 150-160\$을 예정하던 것이 7월18일 현재 175\$을 하고 있어 내년도 180-200\$을 예상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항구까지 또 선적 해운운임등이 매폭인상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도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겠다.

미사료곡물협회에 의하면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수확면적은 전년대비 1%정도 감소하였고 수수는 3% 커리 13% 보리 19%가 감

소하였고 미국내 자체 옥수수 수요량은 13% 정도 증가할것 이라고 추측 하였다. 앞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적립된 사료안정기금을 전부 소진한경우 정부의 사료가격 정책에 따라서는 제1차 유류과 동배와 같은 가축감소가 다시 올 수도 있어 앞으로 양축가는 사료가격및 수요동향 등을 항상 관심있게 주시하여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다.

## 농가부업양계 규모도 상향조정해야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농지세 면시점을 대폭 인상해서 현 감류는 5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울류는 15만 6천원에서 22만원까지 올려 면세 혜택을 받는 농민의 비율은 31%에서 70%로 크게 증가하여 2백 20억원의 감면효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농민이 감면 혜택을 입게 되어 농민에게 새로운 생산의욕을 주게 되었다. 그간 축산업에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상 감면혜택이 주어져 왔었으나 신규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축산업자는 금년도 사업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영세한 축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성장하는 데는 조세감면혜택이 컸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당분간은 석유파동 등으로 자

축산업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어 어느때 보 다도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농가부업축산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업축산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양계 현 1,000수) 소득표준율(양계업 현 12.5%)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대부분 추제과세되는 축산업자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주고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축산인들도 과거와 같이 양적확대에서 이제는 기장을 철저히 하고 적은 것이라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만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불황이 지나면 다시 경기가 회복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양계업자를 볼때마다 양계인이여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외치고 싶을 뿐이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욥 37: 21)」

##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양계인

금년들어 닭고기, 계란 값이 양계인이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밑으로 유지되므로써 규모를 줄이거나 휴업 폐업을 하는 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몇년간 다소 경기가 좋았



던 것이 지나친 확장으로 다시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소득이 증가하면 식생활도 고급화되어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난 6년간 고기와 우유가 2.1%에서 7.3으로 3.5배가 증가한 반면 제분 제당 등은 감소하고 빵 과자류만 약간 증가하여 식생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식품생산구조의 변화 (출하액기준 %)

품 목	1970	1976
육제품 · 낙농품	2.1%	7.3%
계 분	16.3	16.1
빵 · 과 자	10.5	12.1
계 당	10.4	7.5
음 료(술 포함)	35.5	25.7
기 타	25.2	31.3
합 계	100	100

\*1976년 가공식품 생산총액: 18,490억원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총서 1> 소득증가로 고급 식료품 즉 농작물보다 소득탄성치가 높은 축산물, 그 중에도 우유가 3.4로 가장 높고 닭고기는 계 0.3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동연구보고서는 축산물 소비변화는 자체가 가격 대체재가격(代替財) 소득 변수에 의하여 대부분 결정되며 소득변화에 제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 것은 우유소비량이고 다음이 쇠

표 2. 주요 식료품의 소득 및 가격탄성치

	농 작 물 <sup>1)</sup>				축 산 물 <sup>2)</sup>					
	쌀	보 리	밀	배 추 사 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란	우 유	
소득탄성치	0.148	-0.061	0.482	0.467	0.669	1,201	1,077	1,394	1,027	3,433
가격탄성치	-0.184	-0.301	-0.330	-0.605	-0.347	-0.879	-1,474	-0.294	-1,917	-0.502

\*자료: 1)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농업예측모델설정」 1978.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개발연구실추정

표 4. 축산물 총소비 년평균증가율 (%)

기 간	총소	비		유		
		우유	돈육	계육	계 란 우유	
1962~1977	11.23	13.04	7.46	10.31	11.11	49.21
1973~1977	13.05	15.70	10.76	6.34	5.40	26.02

\*자료: 농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수급 및 가격 자료」, 1978.

표 5. 국민 1인당축산물소비 년평균증가율(%)

기 간	총소비	육		류		
		우육	돈육	계육	계 란 우유	
1962~1977	8.62	10.74	6.66	7.68	8.60	39.18
1973~1977	9.98	13.36	8.96	4.92	3.58	24.32

표 6. 가격 소득 대체재의 변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 변화

구분	자체가격10%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비율	소비자소득만 이10%증가할 때소비증가율	쇠고기가격이 10%하락할경 우소비감소율
계 란	19%	10%	
닭고기	3	4	7%
돼지고기	15	11	2
쇠고기	9	12	
우 유	5	34	

\*자료: 허신행 주요축산물 수요분석과 예척

고기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의 순으로 되어 있다.

● 쇠고기가격에 따라 닭고기 소비 크게 변화

표 6에서 보면 닭고기는 소비자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변화는 가장 적으나 쇠고기가격 10% 하락에 닭고기 소비는 7%가 감소되어 쇠고기 가격에 의하여 닭고기 수요가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표 7. 농촌과 도시의 1인당 축산물 소비지출액 비교

년 도	농촌(A) <sup>1)</sup>	도시(B) <sup>2)</sup>	비율(A/B)
1970	312원	3,155원	9.9%
1975	1,329	6,988	19.0
1976	1,870	9,336	20.0

\* 자료 : 1)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2)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 계란·닭고기의 가공처리로 고급화 필요

표 7에서 보면 축산물의 소비는 농촌보다 도시가 5배나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1991년에 가면 농가인구는 20.5% 밖에 되지 않아 축산인은 도시인구의 축산물 소비에 좀 더 치중하여야 되겠다.

앞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은 계속 될 것이고 소득의 향상과 도시생활의 복잡화로 가공 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대량수요와 다량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식품의 위생과 안전고급화 고유식품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

표 10. 닭농가판매가격변동가격(원/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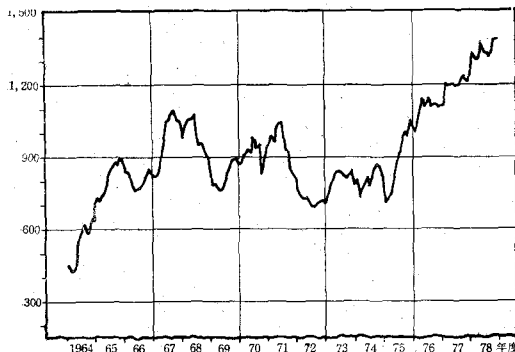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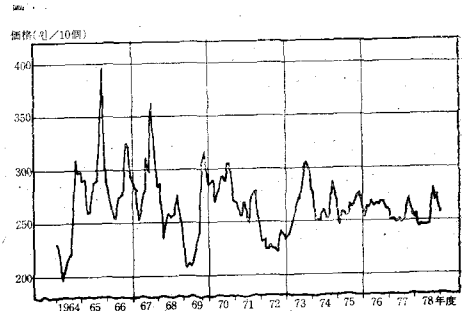


표 9. 계란 농가판매실질가격변동



각된다.

● 년평균 실질가격, 닭고기 3.6% 소폭 증가에 계란 1% 감소

농경연 자료에 보면 1970~77년 동안 닭고기 년평균 소비량은 5.8%, 총소비량은 7.2%씩 증가하였으며 닭사육수수 증가율은 8.1%로 소비추세를 증가하여 실질가격은 년평균 3.6% 상승율로 그쳤으며 사료가격만 안정되면 닭고기 값은 크게 오를 전망은 없고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3년 기준으로 가격의 진폭이 오고 있어 이 진폭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란의 경우는 년평균 5.3%씩 소비가 증가한데 반해 산란계 수수는 1%밖에 늘지 않았지만 산란율의 상승으로(70년 157개, 77년 252개 60.5% 증가) 계란의 실질 가격은 년평균 1%씩 떨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78년도 소비자 물가는 14.7% 상승한데 비해 식료품은 18.8% 상승하여 물가상승을 농산물이 주도한 것같이 보도되어 쇠고기를 비롯한 일부축산물이 수입되었으나 과거 7년간 계란의 실질가격은 년평균 1%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식료품 가격안정을 위해 양계업자의 공헌이 컸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표 9) 금년 전반기의 계란가격 하락까지를 포함하면 양계인이야말로 물가안정의 기수라고 볼 수 있다.